

# ‘채용비리 · 갑질논란 무대응’ 전남대병원장 사퇴 촉구

### 해임안 내일 병원 임시 이사회서 논의 예정

### 병원 측 “해결방안 진행 중...여론몰이 유감”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아빠찬스’, ‘남친아빠찬스’ 등 채용비리와 직장 내 갑질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일방통행, 독단경영하는 전남대병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장 A씨가 채용비

리 당사자를 사무국장으로 연임시키는 것을 보면서 실망과 충격은 너무도 컸다.

A씨는 ‘아빠찬스’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남대병원을 망신시키고도 병원장의 도의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순전남대병원 한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특혜 진료와 지속적인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지만 A씨는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협의회 등은 “전남대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나서면 않는다’는 조사할 수 없다’고 외면하면서 갑질 교수는 가족 특혜진료

만으론만 처분을 하려한다. 그러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애란 전남대병원 노조지부장은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가장 많은 채용 비리를 일으킨 공공기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A 병원장은 ‘다 끝난 일이니 알 필요가 없다’고 문제를 숨기기 급급하고 오히려 채용비리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대병원 측은 “채용비리라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및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해 상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문제는 지난 4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



1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아빠찬스’, ‘남친아빠찬스’ 비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전남대병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제 해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듯 논란이 된 사안 모두 해결

을 위한 여러 방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마치 병원장으로 인해 진행되

지 않는 양 노조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더위 잊고 아름다운 동행** 1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문 앞 천마터널분수에서 전통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전규원(41·대구 수성구)씨가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최혁영 동문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 분수는 불교에서 108가지로 분류한 인간의 번뇌 ‘백팔번뇌(百八煩惱)’와 같은 108노출로 이뤄져 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영남대 천마터널분수는 다음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중앙정보부’ 운영 10대...“혐의 인정”

### 다음 재판 내달 중 열려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

로 구속기소된 ‘자경단’ A군(17)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군의 다음 재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올 3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20대 초반 남성 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상에 의뢰인의 지인

사진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들을 협박해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고, 3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남성들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스스로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한 대기업 인사팀장 돌연 사직 놓고 뒷말 무성

### 사측 “女기숙사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면직 처리”

광주의 한 대기업 사업장의 인사팀장(부장급)이 돌연 사직하는 것으로 놓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17일 해당 기업에 따르면 이 회사 인사팀장인 A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 측은 지난 12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가 여직원 기숙

사에 들어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면직처리했다고 노조에 설명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해 왔고, 그 기숙사의 다른 층에는 여직원 3명도 생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제(16일) 노조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며 “A팀장이 여직원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성폭행

이나 몰카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 공식접수한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 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표명같은 것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몰카 등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소문일뿐 100%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 “타 지역 병원치료비로 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없나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치료 중인 타 지역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모은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 주소지인 부모님을 둔 경기도 광명시 거주 A씨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전남 거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A씨에 따르면 3년간 대장암 항암치료를 받은 어머니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중이고, 아버지 또한 지난 4월8

일 같은 병원에서 척추 수술후 인천 부평구 누나집에서 통원치료 중이다.

현재 수술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차매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대신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버지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80만원 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 주소지인 전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재 인천과 서울에 있는 부모의 병원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부모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으로 옮겨야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럴 경우 주소지 고향에서 받는 여타 지원을 못 받게 돼 주소 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장기간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분들이 입원확인서나 통원치료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병원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